

“수능 준비, 흔들리지 말고 해오던 대로 해야”

광주진학부장협 수능 경향 전망

국·수 초고난도 문항 변화 주목
공교육 출제 강조 기조 반영될 듯
“준킬러문항 많아 변별력 문제 없어”

광주 입시전문가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EBS 교재와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을 당부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광주진협)는 2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2024 수능 경향성 전망 및 대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교육과정 내 수능 출제’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학년 초부터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광주진협은 “수능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의 수능시험 출제 기조·출제 범위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수험생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될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비문학 융합 지문 출제 여부, 공정한 변별력을 위한 수학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수능은 정보량을 줄여가는 기조로 변화해 왔다”며 “다만 올해 수능은 준킬러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수능날까지 학교 수업에 더욱 충실히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진협은 지난 6월 모의평가의 영역별 분석 및 9월 모의평가 대비법도 설명했다.

국어과목 분석을 맡은 신희돈 광덕고 진학부장은 “6월 모의평가에서는 문학, 독서 영역에서 EBS 교재의 지문이 나와 체감 연계율이 많이 높았다.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역시 이와 유사할 듯”이라며 “문학 영역에서 EBS 비연계 작품을 통해 난이도를 높이거나 독서 영역에서 추론적 독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어과목의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EBS 연계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3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어과목 분석을 맡은 오창욱 광주진협 회장(광주대동고 진학부장)은 “6월 모의평가를 살펴보면, 지문의 내용 자체는 어려웠지만 EBS 교재와 간접 연계된 지문이 많았다. 그래프 문제도 EBS 교재에서 그대로 차용했다”며 “수능도 1등급 5~7% 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변별력은 갖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EBS 50% 연계가 이번 수능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수능 시험일까지 학교수업에 더욱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대



창포물 머리 감기 체험 단오를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 키움어린이집 아이들이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야외공공정원에서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며 전통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음식박물관은 지역주민들과 세시풍속 체험행사를 통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나건호 기자

비 방안이다”고 말했다. 수학과목을 분석한 박영광 송덕고 진학부장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는 체제가 되면서 수학의 난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최상위권을 선별하기

위한 킬러문항 난이도가 떨어졌고, 준킬러문항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니 공통과목의 학습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9월 모의평가 이후 곧바로 가채점 결과를 수합해 수시접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양기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 시민사회, 5·18공법단체·특전사회에 토론회 제안

5·18공법단체와 특전사단체에게 광주 시민사회가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활동 방향 및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19일 졸속으로 진행된 두 5·18공법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특전사회)의 화해 행사인 ‘대국민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갈 것이라 예고했다. 또한 대책위는 두 5·18공법단체와 특전사회에 대국민 공동선언을 두고 공개토

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선행 조건, 역사적 책임과 반성 및 진정한 사죄 등을 시민과 함께 열린 공간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다.

대책위는 아울러 최근 광주시의회나 5·18기념재단이 공론장의 필요성을 제시한 상황에 발맞춰 광주가 직면한 오월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시,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 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역사왜곡이나 5·18헌법전문 수록 등 오월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내달 중으로 별도의 공개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군 단위 ‘안전’... 시 ‘교육격차 해소’

전남교육청, 우선 추진정책 설문 학부모, 안전한 환경·교육격차 관심

전남교육청의 우선 추진 정책으로 전남의 군 단위 지역 학부모들은 ‘안전한 교육 환경’을 꼽은 반면, 시 단위 지역 학부모들은 ‘교육 격차 해소’를 들었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유·초·중·고 학부모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4기 전남교육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2.2%P)를 실시했다.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질문(중복 응답)에 지역민·학부

모 37%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1순위로 제시했으며 교육격차 해소(32.8%), 지역소멸 위기 대응(32.3%), 교육력 제고(17.8%), 지역사회 협력(15.3%), 신뢰행정(7%)을 꼽았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시 지역’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조사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시 지역 학부모는 교육격차 해소 36.7%, 안전한 교육환경 36.3%, 지역소멸위기 대응 32.5%, 교육력 제고 18.9%, 지역 사회 협력 8.9%로 조사됐다. 반면 군 지역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소멸위기 대응 32%, 교육격차 해소

29.4%, 지역사회 협력 16.7%, 교육력 제고 16.3%, 신뢰행정 4.5%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유·초·중·고 자녀가 있는 30대~50대의 경우 교육격차 해소를 1순위로 제시했지만 손자를 돌보고 있는 60대 이상은 42.2%가 ‘안전한 교육환경’에 응답했다. 또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치원·중등·고등 학부모는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초등 학부모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요구했다.

고윤혁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전남지역 학부모들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과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미래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